

조국혁신당, 사무처 주요 보직 '호남' 전진 배치

비서실장·전략본부장·사무총장·대변인 호남 출신 '선당후사' 정신으로 비례 출마 없이 '조국' 합류 서왕진 정책위의장 비례 12번...당선 여부 관심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조국혁신당이 최근 조사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돌풍'에 가까운 호응을 얻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조국혁신당에 대한 호남권 유권자들의 지지를 폭등이 눈에 띄는데, 이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당 사무처 주요 보직에 전진 배치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6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용우(57)

당대표 비서실장은 순천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을 역임했다. 조 실장은 순천남초, 순천매산중, 순천고, 한양대를 졸업한 뒤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을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황현선(56) 사무총장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북대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지내며



대 국정홍보 비서관을 지냈다. 광주 송일고와 전남대를 졸업한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중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회담'을 기획한 장본인으로 유명하다. 언론 총괄을 맡고 있는 김보협(55) 대변인은 화산 출신이다.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한 김 대변인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으로 노조위원장을 거쳐 편집

국 부국장까지 지냈다. 김부겸 국무총리 시절 비서실 공보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 실장과 황 사무총장, 그리고 윤 본부장은 당초 이번 22대 총선을 준비하던 '정치신인'이었다. 조 실장은 고향인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황 사무총장은 전주병에서, 윤 본부장은 경기도 의왕·과천에서 출마를 준비하다 조국 대표와 손을 맞잡았다. 이들 세 사람은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기 전부터 비례대표 불출마를 결정했다. 조 대표와 가까운 사람부터 욕심을 버리고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 해석했다. /김진수기자

사무처 소속은 아니지만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서왕진(59) 전 서울연구원장은 영광 출신이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환경정책학 석사,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고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시절 캠프에서 정책 부문을 맡아 핵심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비례대표 12번을 받은 그는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선거일까지 이어진다면 실세 당장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재관 전략본부장은 "호남에서 불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향한 따뜻한 바람은 당의 핵심 인재들이 호남 출신이란 사실 외에도 개혁과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며 "총선을 통해 전국에서 고른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 조국 대표를 비롯해 전 당원이 혁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진수기자

총선 우세지역 자체 분석...국힘 "82곳" 민주 "110곳"

전체 254개 선거구 중 60곳 안팎서 '예측 불허'

4·10 총선을 15일 앞둔 26일 거대 양당이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82곳을,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각각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양당이 전체 254개 선거구 중에서 60곳 안팎에서 아직 확실한 우세를 장담하지 않고 있어 후보자 등록 직후 초판 판세는 대혼전 양상인 것으로 분석된다.

양당은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 크게 5개로 나뉜 판세를 구분했다.

이는 지난주까지 각당의 선거전략 단 위에서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동향 실사 등을 바탕으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다. 각 정당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84개, 민주당은 163개 지역구에서 승리한 점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 초반 판세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현재 판세로 선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투표용지 발급 모의시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 앞둔 26일 투표 모의시험이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열려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발급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38곳에서 비례대표를 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51.7cm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김재기기자

양당의 전략통·지역 선대위 관계자를 상대로 권역별 세부 판세를 취합한 결과 수도권 전체 122개 의석 가운데 '우세·경합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27개, 민주당은 97개로 각각 파악했다.

직전 총선 의석수는 국민의힘 16개, 민주당 103개였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당보다 다소 높게, 민주당은 다소 낮춰 전망한 것이다.

양당이 우세·경합 우세로 분류한 이들 35곳을 빼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는 뜻이다.

부산·울산·경남(PK)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만, '낙동강 벨트'를 따라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과 경남 창원 일부 지역에서는 양당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현역이 있는 사하갑(최인화)과 북갑(전재수)을 우세 지역으로, 남구(박재호)를 경합 우세 지역으로 예상했다.

경남은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양산(김두관), 창원성산(허성무), 창원진해(황기철), 거제(변광용) 등 6개 지역을 경합 우세로 보고 있다.

충청권(28석)의 경우 양당이 서로 과반 선리를 예측하고 있다. 양당 모두 전통적 뒷밭에서는 승리를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15곳 가운데 13곳을 우세 지역으로 전망했다. 강원(8석)의 경우에도 현역 지역구 6곳 모두를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했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광주와 전북, 전남 등 28개 지역구를 모두 큰 이변 없이 석권할 것으로 자신했다. 제주(3석)에서도 민주당은 제주갑·을을 우세, 서귀포를 경합 우세로 분류했다. /김진수기자

민주 전남·경남도당, '광역철도 공동추진' 합의

신정훈·김두관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 토대 될 것"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남도당이 영·호남 연대 차원에서 지역 간 협력사업의 모범으로 '영호남 광역철도 공동추진' 합의를 작성하며 손을 맞잡았다.

26일 민주당 경남 양산시에 김두관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두관 경남도당 위원장은 제22대 국회에서 광역철도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4년간 국가철도망 사업에 포함된 전체 44개 사업 가운데 단 5개 만이 국가선도사업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망과 광주

-나주 광역철도 단 2개의 노선만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서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된 2개 사업의 핵심 추진자였던 두 후보가 제22대 국회에서 공조를 통해 이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다.

신정훈 위원장과 김두관 위원장은 "광역철도가 구축될 경우 해당 지역 간 통행 시간이 단축돼 지역 접근성·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초광역 지방 정부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 상생과 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尹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R&D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적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충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청년들의 일자리·자신형 성장 지원 강화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22대 총선 프리즘

이낙연 "광주, AI 중심도시 만들겠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국회의원 후보(광주 광산)는 26일 "광주를 인공지능(AI)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의 인공지능 중심도시 2단계 사업이 예타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가칭 인공지능 산업

육성 법안'을 제1호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5년부터 시작될 2단계 사업(2025-2029년·6천억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정진욱, '민생 캠프' 필승 결의대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후보(광주 동남갑)는 26일 "전날 '정진욱 민생 캠프 필승 결의대회'를 열어 남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나정식·조영표 상임선대위원장 및 김용집·성현출 공동선대위원장, 임미란·서민석 광주시의원, 황경아 남구의회 의장, 남호현 부의장 등 동남갑 선거구 소속 사·구의원과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후보는 "4월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이라며 '광주 시민과 남구민이 적극 선거에 참여해 민주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

이윤석 "통합 목포시에 광주군공항 유치"

무소속 이윤석 국회의원 후보(목포)가 26일 목포·신안·무안 통합 추진과 함께 통합 목포시 해상에 광주 군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광주 민간공항도 군공항 유치와 동시에 통합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해 매머드급 국제공항으로 육성하겠다"며 "통합 목포시 면 해상에 몇 개의 무인도를 기반으로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

로 등 군공항 관련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가장 '평생 국방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군공항 유치 시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게 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함평 축산발전연구, 이개호 지지 선언

'함평 축산발전연구회'가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담양·함평·영광·장성)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함평 축산발전연구회는 26일 오전 함평 이개호 의원 사무소에서 발표한 지지 선언문을 통해 "이개호 후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절 가설건축물 적용 대상 확대, 불법 축사 이행 강제금 감경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 시행했으며 4%

에 불과했던 적법화율을 85%까지 상승시켰다"며 "지역 축산업에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지역 축산업 발전 뿐만 아니라, 함평 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문금주, 안중근 의사 순국 추모식 참석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26일 장흥군 해동사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제 및 안중근 의사 추모역사관 개관식에 참석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적 외교로 국적이 심각하게 추락한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한 무분별한 사

대주의로 국가 경제가 추락하는 등 나라살림과 국민의 삶도 파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고 추락한 국격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송영길 후보 아들, 보석 신청 수용 호소

육종 출마한 소나무당 송영길 국회의원 후보(광주 서구갑)의 아들이 26일 송 후보의 아들 주환(사진)씨는 26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세 한 번 하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송영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부부담인 법원을 향해 광주 시민 연대의 힘을 빌려 다시 한 번 애절한 호소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송씨는 "광주시민의 열렬한 검찰 독재 타도,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는 시대정신을 가장 앞장서 실천할 송영길을 구해 달라"며 "아버지 없는 차가운 거리에서 외로운 선거전을 치르는 가족의 힘이 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박선강기자